

8

2019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Vol. 291





양양소식

Vol. 291

CONTENTS

양양소식 · 291호

| 발행일 2019년 7월 26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의기양양

4 뉴스 브리핑

- 4 김진하 양양군수 “민선7기 1주년 군민과 소통 행정”나서
- 5 행안부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
양양읍 일원 연말까지 도시가스 공급
- 6 양양읍 시가지 생활경제 및 문화관광 서비스 중심으로 변모
- 7 북양양C 나들목~7번국도 연결도로 개통
윤덕규 양양부군수, 지역현안 파악 현장 행보
- 8 양양군 사이클팀 오제석, 김청수 선수 국가대표 발탁

9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0 의정소식

양양군의회 의정연수 실시



희망양양

- 12 기획취재 양양의 여름은 밤낮없이 즐겁다
- 14 ISSUE & PEOPLE 지금, 어떤 풍경을 바라보며 살고 있나요?
- 16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양양 3□1만세운동과 현산학교

오감양양

- 18 SNS 속 양양 여름휴가, 양양에서 생긴 일
- 20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양양읍 내곡리
- 22 맛있는 양양여행 양양 용천 복숭아

열린양양

- 24 책이야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이달의 신간
- 25 정보꾸러미 추천 일자리
-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김진하 양양군수 “민선7기 1주년, 군민과 소통 행정” 나서 도로변 청소에 동참하며 현장에서의 주민의견 청취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연대 총파업을 하면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양양군지부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전원이 7월 4일, 5일 2일 동안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양양군수를 중심으로 군청 공무원들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내 6개 읍·면에 투입,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오전 8시부터 공무원들과 함께 읍·면 쓰레기 수거 및 도로변 청소에 동참하며, 현장에서의 고충을 직접 체감하고 거리에서 만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진하 군수는 “현장으로 나가 주민들의 생생하고 귀중한 의견도 듣고, 우리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민선7기 1년을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아보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귀중한 의견인 만큼 주민들과 지혜를 모아 오색삭도 설치, 공항 활성화, 남대천 르네상스프로젝트, 낙산도립공원 해제 및 도시지역 확장, 신항만 사업 등 양양군 미래 발전을 선도할 사업들을 힘차게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Tel. 033-670-2102

지난 7월 4일부터 이틀 동안 비정규직 노조의 연대 총파업 방침에 따라 쓰레기 처리는 물론 시설관리사업소, 청소년수련관에 배치된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 역시 파업에 돌입해 시설관리사업소 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는 시간 단축 운영, 청소년수련관은 휴관을 했었습니다. 여러 불편함을 참아주시고 철저한 분리수거와 쓰레기 배출을 줄여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안부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

재정인센티브 1억원 확보

우리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돼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정지출확장계획 확대에 지방 재정 확대 운용의 필요성에 따라 2019년 지방재정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을 추진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2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원 규모에 따라 14개 그룹의 유사한 동종단체별로 추경 시기□규모, 일자리 예산 규모 등 3개 분야 8개 지표를 기준으로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우리군은 국가시책에 맞춰 제1회 추경예산을 당초예산 278,677백만원 대비 68,916백만원(24.7%)증가한 추가경정예산 347,593백만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복합생활체육관조성 35억원, 연어산란장 조성사업 14억원, 율리-가평길 도로개설 43억원 등 생활 SOC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한편, 우리군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8월 중순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Tel. 033-670-2108

양양읍 일원 연말까지 도시가스 공급

양우내안에 아파트, 빌라, 단독 등 354세대 공급

우리군은 1차 도시가스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양양군 양양읍 양우내안에아파트 209세대를 포함하여 연창리와 구교리 일원의 단독, 빌라등 총 35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1차 금년사업은 양양군이 1,254백만원을 지원하고, 공급업체인 참빛도시가스가 1,254백만원 등 총2,508백만원을 투자한다 사업내용은 총 연장 4,067m로 조산리 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에서 보건소까지 본관 3,127m를 보건소에서 양우내안에아파트까지 공급관 940m를 설치하여 각 아파트 및 단독세대에 공급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안전하고 청정한 연료인 LNG를 공급함으로써 연료비 절감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군은 공급업체인 참빛도시가스와 3차년도에 걸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양양읍 지역 전반에 걸쳐 총 3천여세대에 공급배관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등 무분별한 LPG가스통 및 노후배관 철거로 가스안전과 기름보일러 및 탱크철거로 각 세대 내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군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으로 도시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어



대규모 관광시설 유치 등 지역개발과 군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절감되어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경제에너지과 경제에너지담당 Tel. 033-670-2707

양양읍 시가지 생활경제 및 문화관광 서비스 중심지로 변모

웰컴센터 신축, 연어나들목 조성,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등



양양읍 시가지가 생활경제 및 문화관광 서비스 중심지로 변모한다.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10개 세부사업 추진에 속도가 나면서 변화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시설 확충과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국도비 포함 4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양양읍 남문리 210-36번지 일원 1,490㎡ 부지에 지상 5층 규모의 웰컴센터가 지난 6월 신축되어 문을 열었다.

1층은 쉼터, 2층은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될 방침이며, 3, 4층 공간에 2개관 94석의 작은영화관을 조성해 6월 18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관람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또한, 오일장마다 북새통을 이루는 양양전통시장 진입 및 통행이 한층 안전하고 쉬워질 전망이다. 양양읍 남문리 226-2번지 일원에 사업비 7억 7천여만원을 들여 보행자 통로 및 수문을 설치하는 연어나들목 설치 공사는 지난 3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통로박스 내부 조명, 수문설치 작업 등을 마무리해 다음달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3월 18일부터 통제했던 남대천 둔치 제방도로의 통행이 나들목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달 중순부터 재개통 되었다.

이와 함께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중소기업청의 시장 현대화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31억 1,8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7억 5,400만원이 투입되어 지난해 2월 착공에 들어가 이달 중 준공됐다.

다목적광장은 전통시장과 남대천둔치 사이 공터인 양양읍 남문리 210-9번지 일원에 총연장 150m, 폭 32m로 전체면적 4,739㎡ 규모로 조성됐다.

광장 중앙부에는 야외공연장과 계단형스탠드 등을 조성해 음악회, 공연, 축제 등 각종 이벤트공간으로 이용하고, 공연장 좌우측에는 잔디와 조경수를 식재,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남대천 하천정비사업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전선 지중화 사업, 웰컴센터 운영 등 양양 전통시장과 남대천 둔치를 비롯한 양양읍내 시가지 일원을 생활경제 및 관광서비스의 핵심 거점공간으로 집중 육성해갈 계획이다.

문의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담당 Tel. 033-670-2955
대외정책과 전략사업담당 Tel. 033-670-2287

북양양C 나들목~7번국도 연결도로 개통

2017년부터 추진해온 북양양C 나들목~7번국도 연결도로 개설 공사가 이달 초 준공되어 개통됐다.

지난 2016년 11월 양양~속초를 잇는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관광객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북양양C 나들목 진출입에 대한 이용 불편 문제가 줄곧 제기되면서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북양양나들목과 7번국도 연결도로를 개설하게 됐다.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2017년부터 물치쌍천 제방길을 확포장하는 등 북양양C 나들목과 7번국도를 잇는 연결도로 2.66km(폭 10m, 왕복 2차선)를 개설해왔으며, 이 중 토지 보상 협의 문제 등으로 지연되어 오던 북양양나들목 진출입로에서 제방도로로 연결되는 0.7km 구간도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7월 5일 연결도로 개설 공사가 최종 준공됐다.

이번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나들목과 시내권·관광지를 경유하는 주도로인 7번 국도와의 원거리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연결도로(군도1호선)가 농촌마을인 강선리 주거공간을 관통함에 따른 교통 혼잡과 농기계 등과의 사고 위험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북양양C 나들목의 통행량이 더욱 크게 증가하면서 물치쌍천 연결도로를 통해 인근지역인 물치항과 낙산사·설악해변(비치마켓)·낙산해변을 비롯해 동해안의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 북양양C 나들



목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군은 연결도로 진입부인 7번국도에서 물치마을 뒷길을 따라 강현농협으로 이어지는 450m 구간도 토지 보상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12월쯤 준공 예정이다. 또한, 나들목 진출부에서 강현면 강선리 마을과 접속하는 구간(군도1호선)에 가로등 부족으로 우려되는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26주 설치 공사는 7월말 마무리됐다.

우리군은 지난 2016년 양양~속초 구간 동해고속도로 개통에 앞서 북양양C 진·출입로 이용 불편을 일정부분 예견하고 민선6기 때부터 발빠르게 국비 확보와 도로 개설 등 해결책을 마련했으며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문의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담당 Tel. 033-670-2773

윤덕규 양양부군수, 지역현안 파악 현장행보

지난 7월 1일 취임한 윤덕규 양양군 부군수가 실과소 업무보고에 이어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업무파악에 나섰다.

윤 부군수는 지난 5일 양양신항만, 동해북부선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20개 실과소에 대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9, 10일에는 오색삭도 및 오색지구재정비 사업현장,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대상지 10개소를 방문하고,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는 등 본격적인 군정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신임 부군수로서 군정의 핵심시책과 현안문제 등을 조속히 파악해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당면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함이다.

윤 부군수는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실용 위주의 행정 추진을 통해 상황에 따른 업무대처 능력을 배양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앞으로 형식적인 회의를 지양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윤 부군수는 강원도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과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장, 복지정책과 복지기획담당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빈틈없는 일처리와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그동안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세게로 뻗어가는 글로벌 플랫폼, 양양’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Tel. 033-670-2101

사이클 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 유치...지역경제 보탬

우리지역에서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먼저 지난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양양군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제1회 양양컵 리틀K리그 전국유소년 축구대회'가 개최되어 전국 61개팀 800여명의 선수, 임원 및 가족 등 1천2백여명이 양양 지역을 다녀간 것으로 추산, 숙박 및 관광지 방문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6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양양자전거공원 BMX경기장에서 양양군과 대한자전거연맹이 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2019 YANGYANG BMX INTERNATIONAL'이 개최됐다.

남녀 초·중·고등부, 일반부, 해외선수 임원 등 20개팀 2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결승점 통과 순서로 우열을 가리는 BMX 레이싱 종목의 경기는 전국 16개 시도 유소년단 200명과 100명의 동호인 선수 등 300여명 참가하였다.

또한,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양양사이클경기장과 관내 도로 일원에서 '2019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가 개최돼 전국

92개 팀 500여명의 선수단이 양양지역을 찾았다.

또 대회 마지막 날인 6월 29일에는 '마스터즈 사이클 양양투어'가 진행되어 아마추어 동호회 선수 500여명이 참가하는 등 8일의 대회 기간 선수와 임원, 가족을 포함해 2,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30일에는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2019 양양 생활체육전국산악자전거대회(MTB)'가 송이밸리 MTB경기장에서 예정되어 있어 전국의 MTB동호인 300여명이 양양에 집결했다.

탁동수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양양사이클경기장과 BMX 경기장, 송이밸리자연휴양림 MTB 코스 등 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전거 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며, "크고 작은 대회를 통해 우리 군이 트랙, 도로, BMX, MTB까지 포괄하는 진정한 자전거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기능을 담당해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담당 Tel. 033-670-2731

양양군 사이클팀 오제석, 김청수 선수 국가대표 발탁

양양군 사이클팀 오제석(만22세) 선수, 김청수(만21세) 선수가 지난 21일 양양 벨로드롬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강원도 화천 출생인 오제석 선수는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단거리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 중이며 2016년 제 18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 200m 1위, 2017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 경륜경기 1위, 2018년 제 20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 경륜경기 1위, 최근 2019년 제21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 독주경기 1위를 차지했다.

강원도 양양 출생인 김청수 선수는 2019년 6월 단거리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었으며, 2018년 5월~10월 단거리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다. 2017년 8.15경축 2017양양국제사이클대회 스프린트경기 1위, 2018 제35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 경륜경기 2위, 2019 제21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 경륜경기 1위, 2019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 경륜경기 1위를 차지했다.

양양군 사이클팀은 1991년 여자 팀으로 창단된 후 96년 남자 실업팀으로 전환돼 현재 박상택 감독, 이호식 코치 지휘 아래 오제석, 김청수 등 7명의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다.

양양군은 2012년 국제 공인 사이클 전용경기장인 벨로드롬을 준공하고, BMX 경기장, 송이밸리자연휴양림 MTB 코스 등 시설 인프라를 구축, 이를 기반으로 자전거 대회를 적극 유치



오제석



김청수

하고 있으며, 양양중, 양양고로 이어지는 사이클부 출신의 동문들은 동문회를 운영하며 사이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이클 대회가 열릴 때면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는 양양군민의 각별한 애정이야말로 양양이 사이클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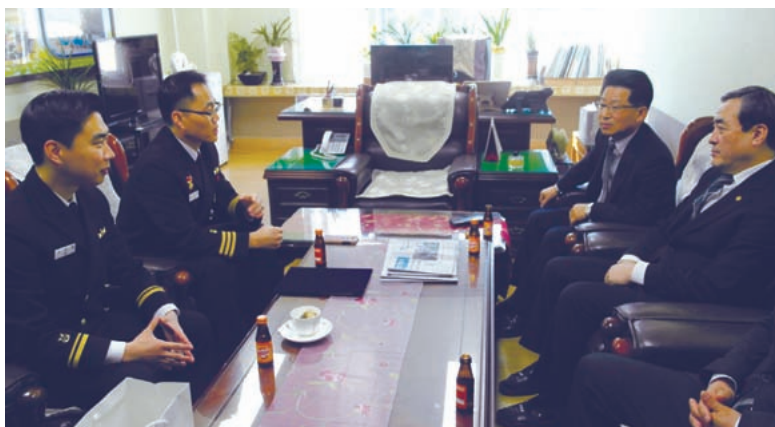
한편, 양양군 사이클팀은 이번 국가대표로 발탁된 오제석, 김청수 선수 이전에도 김동영, 김철수, 유범진 등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했다.

문의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담당 Tel. 033-670-2731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 양양작은영화관 개관 1달 3,800명 돌파, 문화 휴식 공간으로 인기
2. 영화, 서핑이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축제 그랑블루 페스티벌
3. 한잔도 안돼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
4. 나눔이 행복이다. 농협 농가희망봉사단 발대식
5. 우리가 지켜요~!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 실시



지역민과 함께하는 해군 81기지, 81기지의 날을 축하합니다.

8월11일은 해군 81기지의 날이다. 해군 81기지는 1988년 6월1일 108전대 예하부대로 창설되어 지난 30년간 해군1함대 최전봉 타격부대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광정초등학교 장학금 후원, 다문화가정 후원, 산불진압을 포함한 각종 대민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한 외 식장려 '신나는 문화예술 여행'에 마을주민과 어린이 초대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의정 실무능력 및 전문지식 습득 군 현안사업 검토를 위한 관련사업장 견학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의정연수는 2019년 하반기 의정활동을 앞두고 전문지식 습득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의원들은 필수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의원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수료했다. 또한 조례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실무에 관한 교육을 수강했다.



□ 탐라해상풍력발전 방문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한국남동발전)을 방문했다. 풍력발전 조성 경과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운영시설을 견학했다.



□ 제주해양수산연구원 방문

의원들은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을 방문하여 제주 특성어업 연구·기술개발 보급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생태체험관을 관람했다.



□ 제주 서핑지역 방문

의원들은 양양 서핑산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제주 서핑지역(제주시 이호해변)을 방문했다. 양양군 서핑비치로드 및 해양레저특화지구 조성에 따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주의 서핑사례를 청취했다.

집행부 현안사항 청취 및 논의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지난 7월 네 차례에 걸쳐 6개의 안건을 놓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낙산사해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2019년 그랑블루페스티벌 지원에 대한 예산성립전 사용계획을 청취하고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치행정과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행정절차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양양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최근 제작된 다큐멘터리 시연회를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와 SNS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양양을 홍보해줄 것을 강조했다.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우려는 없는지 판단하고, 사업대상지의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사업추진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



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2020년에 양양에서 개최되는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담당부서에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여름 해변 현장점검 관광객 맞이 위한 제반사항 점검 및 근무자 격려

의원들은 지난 7월 23일 우리군 주요 해변인 낙산해변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우리군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잘되었는지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해변 행정봉사실을 방문해 해변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양양의 여름은 밤낮없이 즐겁다

올여름 대한민국에서 서핑 등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좋은 해수욕장 1위에 양양 죽도해변이 선정되었다. 역시 여름은 동해안 해변이 인기 일 순위다. 동해안으로 오는 길이 정체되고 힘들어도 푸른 바다를 보며 피서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은 이어진다. 하지만 고단한 길을 마다않고 와서 즐기기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늘 있었다. 낮에는 바다에서 놀고 그 다음은 뭘 하지?

이제 양양 해변에서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은 싹 날려버려도 좋다. 밤에도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야시장 즐기기와 전통시장 토요일, 그리고 비치마켓까지 시끌벅적 즐겁기 때문이다.

양양 맛있는 야시장

올 여름에 단 5차례 열리는 '양양 맛있는 야시장'이 여름밤을 시원하고 달달하게 만들어준다. 이미 지난 5월에 야시장이 열려서 다양한 먹거리의 즐거움을 느꼈는데 7월, 8월, 9월에도 펼쳐진다.

지난 5월 양양 웰컴센터 앞 제방도로에서 오후 5시부터 '양양 맛있는 야시장'이 열렸는데, 양양에서만 맛보는 맛있는 표고 닭강정, 설악 샌드위치, 양양 떡갈비와 더불어 키조개 버터구이, 불계 강정, 소시지 구이, 치즈 구이 등 푸짐한 즉석 먹거리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신선한 로컬 농산물, 아동복, 액세서리, 가죽공방, 문구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으며, 비눗방울 퍼포먼스, '버블아트쇼'가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7월에는 25일(목)~26일(금), 8월에는 1일(목)~2일(금), 7일(수)~8일(목)에 두 차례 열리고, 9월 20일(토)~21일(일)에도 열린다고 하니, 맛있는 야시장에서 밤의 즐거움을 만나면 좋겠다.



전통시장은 토요일이 풍성해요.

토요일에는 전통시장으로 가면 더 좋다. 요즘 농촌에서는 신선한 채소는 물론이고 서면 용천리 등에서 재배된 복숭아와 자두가 제철이어서 시장 안에 들어서면 과일향이 달달하다. 복숭아를 한 보따리 사니 덩으로 2~3개를 얹어주는 인심에 역시 전통시장에 온 기분이다. 옥수수, 감자, 호박 등 채소들

이 싱싱하고 푸짐해서, 추억을 떠올리며 고향의 맛을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한 보따리씩 사 들고 가는 모습도 보기 좋다. 오는 10월까지 토요일 오전에는 양양전통시장에서 잃었던 입맛도 되살리는 구수한 먹거리 장터를 만날 수 있다.



항구에서 펼쳐지는 비치마켓 이색적이라네요.

매달 둘째 주말에 후진항은 새롭게 탄생된다. 아담한 소규모 항포구와 활어회 센터가 있고, 바로 옆 설악해변에는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로 북적대는데, 일 년 내내 매달 이틀간 펼쳐지는 비치마켓이 7월이 되자 제철을 만났다.

해변에서 놀다가 비치마켓에서 체험을 즐기고, 바다를 보며 시원한 커피 한 잔, 그리고 회 센터에서 싱싱한 회를 즐길 수 있으니 제대로 마켓이 펼쳐진 셈이다.

지난달에 처음으로 비치마켓에 왔다가 이 달에도 비치마켓을 찾았다는 송찬호씨 가족을 만났더니, “양양, 속초지역으로 자주 여행을 오는데,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 후에는 양양으로 오는 길이 편리하고 가까워졌어요. 비치 마켓은 지난 달에 처음 왔는데,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 이색적이어서 재밌고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피서삼아 1박 2일로 와서 해변에서 즐기고 비치마켓에 또 왔지요”라며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어서 좋다고 한다. 아직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일러서 해변에서 놀며 비치마켓에서 간식도 먹고 지역 특산물도 구입한다는 관광객들은 비치마켓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 물건을 사고파는 마켓이지만 체험장과 요소요소에 쉬며 즐길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두어서 마치 즐겁게 노는 공간으로 인기가 많았다.

‘비치마켓@양양 꿈꾸는 바다’는 바닷가에서 즐기는 마켓이라는 색다른 요소가 매력적이다. 2017년 11월부터 양양에서



열린 양양 비치마켓은 이제는 어느 덧 지역 셀러들도 열심히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방문도 이어지면서 특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올 여름에는 양양의 해변과 볼거리 풍성한 양양의 시장에서 맛있는 여름을 만나면 힐링이 따로 없을 것 같다.

〈글·사진 : 편집부〉



ISSUE & PEOPLE _ 양양 새내기 주민들의 양양살이

이승범 · 김민영 부부 / 황태연 · 이의지 부부

지금, 어떤 풍경을 바라보며 살고 있나요?

16년 만에 양양의 인구 감소가 멈췄다고 한다. 양양이 서핑 명소로 떠오르면서 단순히 관광지가 아닌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이주해 오는 젊은이들이 늘어난 까닭이다.

‘어디서 살 것인가?’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어떤 풍경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풍경 속에서 인생의 묘미를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 젊은 이주민들은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스스로 삶의 길을 개척하며 다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욕심을 버리니 행복이 따라오더라.



〈묵다여관〉의 김민영(37세) · 이승범(38세) 부부

양양 인구리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이승범 · 김민영 부부가 이곳으로 이주한 지 1년 2개월이 다 되어간다. 서울에서 의류 사업을 하다가 인연을 맺게 된 지인이 양양으로 이주하면서 이승범 · 김민영 부부에게도 양양살이를 권했던 것이다. 지인은 매입한 건물의 2층 공간을 부부가 맡아주



기를 바랬고, 작년 6월에 〈묵다여관〉을 오픈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좋은 인연 덕분에 낯선 곳에서 자리 잡는 일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이주를 결정하기까지는 고민이 많았다. 여섯 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교육, 안전, 치안, 편의 시설 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도시의 인프라보다는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껏 걱정을 안고 시작한 양양살이는 생각보다 만족스러웠다. 바다를 가까이 둔 삶은 즐거웠고, 아이는 깨끗한 자연의 품에서 건강하게 자랐다. 교육적인 혜택도 도시 못지않았다. 비슷한 또래의 이웃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공동육아가 이루어졌고, 노동력을 공유하는 품앗이 문화도 형성되었다.

무엇보다 삶 자체가 자연스러워졌다. 욕심을 어느 정도 내려놓으니 소소한 즐거움도 보이기 시작했다. 돈만 바라보

고 왔다가 결국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하지만 일단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내 터전을 살기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부부의 생각이다. 여행자에게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지금의 일이 더욱 즐거운 이유이다.

이승범 · 김민영 부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 양양살이를 선뜻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들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

을 주면서 양양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꿈꾼다. 자기 삶을 즐길 줄 아는 멋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지금 이곳이 누구나 살고 싶은 동네가 되기를, 그리고 이곳에서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유튜브에서 '고맙다양양'을 검색해보세요

〈목다여관〉 이승범, 김민영부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풍경을 나누고 싶은 마음



〈플로우비치〉의 이의지(26세) · 황태연(30세) 부부



양양 인구해변과 죽도 방파제가 바라다보이는 곳에 자리한 〈플로우비치〉는 카페 겸 숙박공간으로, 지난해 12월에 오픈했다. 〈플로우비치〉를 운영하는 황태연 · 이의지 부부는 이제 양양살이 8개월 차, 새내기 양양주민이다. 매년 인구해변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다가 서핑에 매료된 황태연 씨는 인구리에서 가족과 함께 사업을 준비하던 중 서울에서 음악 공부를 하는 이의지 씨를 만나 작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바닷가에서 함께 카페를 운영하자는 황태연 씨의 말에 이의지 씨는 큰 고민 없이 이주를 결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았다. 다행히 주위에 비슷한 또래의 젊은 부부들이 있어 친분을 쌓아가다 보니 점차 적응할 수 있었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조용한 삶을 좋아하게 되었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황태연 씨는 비수기 때 마을 풍경

을 카메라에 담아 엽서로 제작해서 이 동네가 가진 예쁜 모습들을 이미지화해볼 생각이다. 이의지 씨는 남편의 제안으로 자신의 전공을 살려 카페에서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다. 바다 이야기를 소재로 아내가 곡을 쓰고, 남편이 노랫말을 붙여 만든 자작곡들도 여럿 있다.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취미도 즐기며 양양살이의 묘미를 찾아가는 중이다.

〈플로우비치〉 건물 옥상에 오르자 푸른 바다가 한눈에 담긴다. 황태연 씨는 자신이 사랑한 그 풍경을 아내와 함께 매일 바라본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그 풍경을 나누고 싶다. 정주민과 이주민이 서로의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함께 일구어가는 동네, 새로운 변화와 문화가 창출되어 누구에게나 꾸준히 사랑받는 해변이 되길 바라는 젊은 부부의 희망이 인구리의 풍경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가 된다.

〈글 · 사진 : 편집부〉

양양 3·1만세운동과 현산학교

양양지방은 한반도 동해안 중심에 위치하면서, 양양의 진산인 설악산에서 남대천이 동해로 접하는 농촌지역으로, 동해를 접하고 있으나 어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농업에 주력하여 농촌 중심으로 계 문화와 두레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80%가 산악지대로 생활은 넉넉하지 못했으나 산수(山水)가 수려하여 풍요로운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라에 번고가 생기면 애국 충정하는 충절의 고장으로, 기원전 예국(濊國) 때부터 문화와 예술, 가무를 즐기면서 살아왔다.

일경의 무차별 총살로 반일감정 악화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국권을 빼앗기자 일제의 강압으로 농민들은 핍박으로 시달렸다.

1908년 6월 17일 한낮에 손양면 송전리 쌍호에 오리사냥을 나온 일본 순사가 집에서 베를 짜는 송전리 고 씨 부인을 희롱하므로 마을 서당 훈장인 고익주가 분개하여 일본 순사를 꾸짖었다.

일본 순사는 소지한 총으로 그 자리에서 무참히 사살하였으며, 또한 이를 목격한 고혁주와 고광하도 항의하자 역시 차례로 사살하여 조용했던 마을에서 갑자기 3명이 숨지는 치욕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양양 농민들은 반일감정이 점차 높아져 갔으며 그 분노가 3·1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강원도 최초의 사립 현산학교가 설립되다

남궁억(南宮億)은 1905년 12월 26일 양양군수로 임명받고 1906년 2월에 부임하였다. 이것이 양양에 일찍이 신문화 교육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남궁억은 근대의 대표적인 개화파 지식인으로 독립협회와 황성신문을 통하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는 민중의 자각과 교육을 통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 인물이었다.

남궁억은 부임하자 학교를 세우기 위해 기부금을 모으기로 하였다. 하지만 유교를 숭상하는 대부분의 지방 유림들은 비협조적 일수 밖에 없었다. 남궁억 군수는 국권 회복과 민족 부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본인의 사재(私財)와 문중을 설득하여 기부금을 모으니, 결국 유림에서도 1만량의 기금을 출연했고 이를 기본금으로 현산학교를 세웠다.

1906년 9월 8일 현산학교가 인가되었고, 1910년 4월 1일 양양공립보통학교로, 1951년 9월 1일 양양국민학교로, 1996년 3월 1일 양양초등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계승한 영동지역의 초등교육의 산실인 것이다.

이렇게 강원도 최초의 사립학교인 현산학교를 세우고 학생을 모집하였으나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 호별 방문을 통해 설득해 보았고, 자녀가 있는 집마다 의무적으로 한 명씩



남궁억 선생 동상(양양초등학교 교정)

학교에 강제로 보내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고성과 강릉, 삼척 등 각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들어 약 200여 명의 학생을 모집하게 되었고, 학제는 3학년 과정으로 학생들의 나이는 17~8세까지 상투를 튼

학생도 있었다.

남궁역 군수는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와 음악을 가르쳤고 산수, 역사, 일어, 체조, 국문과 한문도 가르쳤다. 수업료는 없었고 공책과 연필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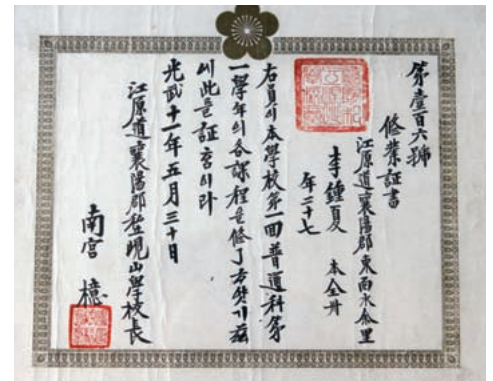
국권강생(國權更生)의 길은 오직 교육 밖에 없으며, 민족주의 정신을 함양시키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구국교육을 실시하여 후일 양양 3·1만세운동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만세운동 재현



옛 현산학교 터



현산학교 졸업증서(이종하)

현산학교 출신들이 만세운동의 주역이 되다.

양양 3·1만세운동 당시 남궁역 군수가 설립한 현산학교에서 신문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각 마을 구장을 맡고 있었으며 또한 지역 유지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3□1만세운동은 각 마을 마다 급속도로 조직화 되어 만세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다.

유림 대표이며 3·1만세운동의 주모자인 이석범 선생은 양양보통학교(전 현산학교) 1회 졸업생인 최인식(崔寅植)을 계획에 참여시켜, 유림이 접근하기 힘든 청장년층과 농민, 종교인 그리고 각 마을 구장들과 신속히 연결되었다.

같은 시기에 양양감리교회에서는 3월 하순 조화벽이 가지고 온 독립선언서를 당시 교회 청년지도자이며 양양보통학교(전 현산학교) 8회 졸업생인 김필선에게 전달되었다.

당시 양양보통학교 출신인 최인식, 김필선, 김계호, 김주호 등

은 선후배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유림 세력, 감리교 세력과 그리고 민족의 독립을 열망하는 농민 세력과 서로 일치되어 연합 세력이 빠르게 형성되었다.

또한 양양 3□1만세운동에서 가장 장렬(壯烈)하게 순국한 손양면 가평리 구장 함홍기(咸鴻基)는 양양보통학교(전 현산학교) 출신으로 양양면의 동창들과 각 마을 구장들과도 인맥이 폭 넓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양양 3·1만세운동은 남궁역 군수가 설립한 현산학교 졸업생들이 주도적으로 유림, 종교인, 농민들과 연합하여, 1919년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연인원 1만 5천여 명이 참여하여, 전국 지방에서는 그 유래가 없는 가장 극렬하고 조직적인 만세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여름휴가, 양양에서 생긴 일

여름! 청록의 향연이 그리워진다.

도심 속 회색 건물들이 갑갑하게 느껴질 때 초록과 파랑이
넘실대는 곳, 양양이 떠오른다.



낙산 해변

특별한 낙(樂)을 찾아서, 낙산해변 그리고 낙산사

다채로운 즐거움을 품고 있는 양양 낙산은 2Km에 이르는 백사장과 야트막한 수심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물놀이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해안가 주변으로 펼쳐진 소나무 숲은 청량감을 더해준다. 해질 무렵에는 커피한잔을 들고 낙산 디자인 거리도 걸어본다. 천년고찰 낙산사를 오르는 길은 해변과는 다른 즐거움을 준다. 연꽃이 가득 핀 연못, 웅장한 대웅전, 잘 단장된 경내와 천년된 석탑, 눈을 호사롭게 하는 풍경들이 실재없이 이어진다. 곳곳에서 파도소리가 싱그럽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절벽위의 의상대가 그렇고 우리나라 최대 높이의 해수관음상이 그렇다. 흥련암에서 간절히 소원도 빌어본다. 낙산에서의 하루는 특별함이 가득하다.



깊은 산속 피톤치드에 취하다! 미천골자연휴양림 그리고 선림원지

문득 깊은 산속의 진한 피톤치드가 그리워진다. 미천골의 녹음에서는 초록의 탄성을 느낄 수 있다. 12Km에 이르는 미천골 계곡, 흙냄새 이슬냄새 이끼냄새... 원시시대 고향으로 돌아온 듯 반갑다.

숲이 뿜는 향은 정원의 그것과 느낌과 깊이가 다르다. 진한 농도와 뚜렷함 속에서 눈과 마음도 초록으로 물든다.

미천골 자연휴양림에 들어서기 전에 선림원지가 있다. 삼층 석탑과 석등 부동 등이 남아 옛 사찰의 규모를 가늠하게 해준다.

철분과 탄산 성분이 함유되어 오묘한 맛을 자랑하는 불바라기 약수 한 모금으로 건강도 채울 수 있다.

미천골자연휴양림의 하룻밤은 시원함과 평온함을 안겨준다.

〈글·사진 : 편집부〉



TIP_ 미천골 자연휴양림 : 양양군 서면 미천골길 115

문의 : 033-673-1806

여름해변 개장 : 7. 12 ~ 8. 25

8월 특별한 즐거움이 가득한 양양을 찾아서-#양양여행코스 #양양박2일여행 #양양맛플레이스 #양양여름휴가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양양군 양양읍, 내곡리(奈谷里)

삼림욕장을 뒷마당삼아 힐링하는 마을,
냉장터로 불린 샘터에서는 여전히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
도심속 인정 많은 마을, 최고예요



복달임 함께 하며 즐겁게 살아요



내곡리에서는 초복을 맞이해 경로당에서 28명의 노인 회원 가운데 23명이 모여 복달임을 했다. 복날에는 음식점이 붐비고 복잡해서, 주말을 이용해 마을회관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복달임을 했다. 이상래 노인회장은 이런 때 놓치지 않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사람 사는 재미가 아니겠냐고 함께 모인 어르신들도 즐거워했다.

내곡리는 옛날에는 선비들이 많이 살아서 “먹물(墨)이 내(川)를 이뤘다”고 해 ‘먹길(墨道)’이라고 불렀다고도 하고, 산과 골(谷)에 삼림이 무성하여 토지가 비옥하고, 농작물에 흉풍이 없다 하여 모로동(毛老洞)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내목(奈木), 즉 고야나무(토종자두)가 많았으므로 ‘멋질’(내곡

리)이라고 부른다.

마을은 도로변에서 쑥 들어가는 형상인데, 뒤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담처럼 둘러쳐져 있다. 우거진 소나무 중에는 오래전 마을 선비들이 제주도에서 9그루의 어린 소나무를 가져와 심었는데, 지금 3그루가 남았다고 한다. 그 중 한 그루가 내곡리의 서낭당 신목(神木)으로 모셔져, 매년 정월에 날을 받아 마을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마을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양양읍에서도 아파트 단지가 우뚝 솟은 마을이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30여 가구의 주민들이 작은 마을처럼 지내는 마을이 내곡리이다.

울창한 소나무 숲길과 샘터, 행복한 자연의 선물

국도 44호선이 지나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초입에 자리한 내곡리는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지만 안쪽으로 깊게 들어서야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마을이다.

도로변의 번잡함을 버리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활처럼 휘어진 듯 모노골 삼림욕장이 자리하고 있다. 산등성이를 따라 2km의 소나무 숲길이 있는데, 수십 년 넘는 소나무가 치솟아 숲을 이루고 있다. 숲길을 걷고 내려서면 모노골 샘터에서 시원하고 맑은 물이 솟는다. 마을에서는 <모노(毛老) 샘터> 또는 <냉정터(冷井址)>라고도 부르는데, 예전에는 단오 때 마을 여성들이 샘터에서 몸을 씻으면 물이 좋아 피부병도 나았다고 하니, 숲이 좋고 물 좋은 마을다운 옛 이야기이다.

최근 모노골 삼림욕장이 유명세를 치르면서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올해 마을 입구에 대형 버스 주차장이 마련돼 관광객 맞이에도 불편을 덜었다.



자랑할 것 없지만 이웃끼리 가족처럼 지내요.

농사를 지으며 몇 대째 살고 있는 30가구 되는 원주민들과 1,000여 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내곡리는 농촌과 도심이 어우러진 마을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내곡리는 양양군에서 4번째로 규모가 큰 마을이지만, 윗대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주민들은 주변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이웃 간에 정을 나며 오순도순 살고 있다.

내곡리 전원섭(57세) 이장은 올해로 12년 차 마을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매년 정월 대보름날 어르신들과 윷놀이

잔치와 복달임을 하고, 주민들과 정을 나누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마을의 자랑이라고 한다.

또한 모노골삼림욕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주차장과 양양의 대표 먹거리(맛집) 등을 안내해 주며 마을을 알리고 있으니 자부심도 크다고 한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과 기존의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여러 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다.

<글·사진 : 편집부>

“양양에는 딱딱이, 말랑이 라고 불리는 복숭아가 있다”



양양 용천 복숭아마을

그저 술한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 속으로 그리는 지상낙원을 ‘무릉도원’이라 한다. 그곳에서는 습관적인 근심 걱정도 헤실헤실 풀어져 욕심에도 시달리지 않을 만하여 일생을 영락없는 이상향의 선계로 여기는데, 이를 당시의 중국사람 도연명이 처음으로 ‘무릉도원’이라 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며, 당시의 중국사람 소동파가 중국 최고의 시

인이라고 했던 도연명이 꿈꾸던 ‘무릉도원’에는 반드시 한 가지 과일과 꽃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 과일은 복숭아이고, 꽃은 복숭아꽃을 뜻하는 ‘도화’이다. 그는 제 아무리 풍광이 아름답더라도 복숭아꽃이 만발한 곳이 아니면 무릉도원의 첫 번째 조건으로 여기지 않았다.

붉은 복숭아에 파묻힌 용천마을 사람들

도연명이 이를 만한 ‘무릉도원’의 조건에 부합할 만한 곳이 양양의 서면 용천마을이다. 일명 ‘복숭아 마을’로 불리는데, 마을이 온통 복숭아 천지이다. 이웃하고 있는 북평마을의 복숭아까지 더한다면 도연명이 꿈꾸던 ‘무릉도원’이라 할 만하다. “도화야 자랑 마라 너는 일시 춘색이라/아마도 사절 춘색은 술뿐인가 하노라”하였지만 4월의 아침부터 붉은 빛의 복숭아 꽃잎

에 파묻힌 마을의 풍광을 보았더라면 어찌 도화의 춘색을 일시라고만 여길까 싶은 만큼, 그때가 아름답기도 한 마을이다. 지금은 붉은 것은 붉은 대로, 흰 것은 흰 대로 진한 복숭아 향속에 달달한 과즙이 흥건하게 벤 복숭아 맛과 향으로 가득한 무릉도원이다. 마을 가운데 길을 따라 양 옆으로 농가마다 이른 아침부터 가져고 나온 복숭아 난전이 늘어서 있고, 양양시



장 농협 앞에서도 복숭아 난전이 성황이다. 지금처럼 용천마을이 복숭아 천지가 될 때까지는 흡사 송천 딱마을 사람들의 삶과 닮아 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몇몇 집에서 한두 그루씩 심었던 ‘빠죽 복숭아’를 나무 껍질에 담아 손수레, 지게로 져 나르거나 대야에 담아 양양장에서 팔곤 했다고 한다. “지금

이야 도로도 좋고, 차가 있으니까 좋지. 꼭 요맘때라 얼마나 더워, 모가지가 뿌러지라고 이고 오면 사람이 축 늘어졌으니까” 스물다섯에 강현에서 시집을 왔다는 이춘희(74)어르신은 복숭아 팔던 이야기이다.

딱딱이, 말랑이 용천마을의 재미있는 복숭아 이름

용천 사람들은 굳이 복숭아 품종을 알리고 하지 않는다. 모든 과일이 그렇겠지만, 복숭아만해도 300여 가지가 있다고 한다. 백도, 창방, 대월, 단백도, 오로도끼, 마도가 등 무슨 수로 다 외워가며 팔겠다면 젊은 어머들이 딱딱한 것은 ‘딱딱이’, 말랑한 것은 ‘말랑이’이라고 하길래, 파는 우리도 사가는 사람들이 딱딱한 것, 말랑한 것으로 구분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지은 복숭아 이름이 오히려 더 편하다 보니 용천 복숭아를 뜻하는 별칭이 되었다고 한다. 이 탓에 붉은 복숭아를 담은 대야마다 ‘딱딱이’, ‘말랑이’이라고 종이박스를 찢어 만든 재미난 풋말을 꽂아 두고 있다.

6월 20일 경부터 먹을 수 있는 용천 복숭아는 배가 나오는 10월까지 맛 볼 수 있다고 한다. 달콤한 향과 은은한 단맛 뿐만 아니라 과즙의 단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것이, 주문진 장덕리 마을의 복숭아보다 자랑할 만 하다고 하여, 용천복숭아 맛을 한번 본 사람들부터, 양양에 들른 관광객들까지 달콤한 향을 쫓아 이른 아침부터 성황이다. 무릇 용천 복숭아마을 사람들이 무릉도원을 자처하지 않아도 붉은 복숭아 한 입 베어 물어 입속에서 흥건하게 베어 나오는 단물의 달콤함이 무릉도원 일 테고, 최소한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 그루씩 일궈 온 복숭아밭이 곧 삶일텐데 이 여름, 양양을 대표하고 있는 맛의 무릉도원은 이곳 용천 복숭아마을이 아닐까 싶다.

〈글 · 사진 : 강원도외식저널대표 황영철〉



책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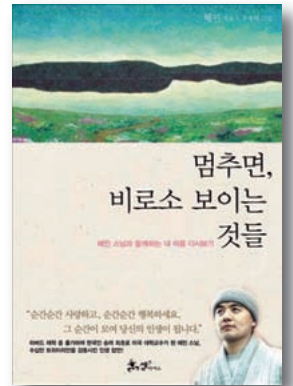
“헤민 스님과 함께하는 내 마음 다시 보기”

이 책은 ‘마음’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 헤민 스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음의 렌즈에 의해서 인식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에게 펼쳐지는 세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에 앞서서 늘 실패와 고통을 상상하며 불안해하고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과에 무관하게 그 안에서 배움과 행복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헤민 스님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으로 오감으로 느껴지며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감각적으로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일단 멈추어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이 책은 관계, 미래, 인생, 사랑, 열정 등을 테마로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와 가치관을 넘어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긍정의 처방전이 되어 줄 것입니다.

책 속 밑줄 긋기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내 스스로가 진흙탕과도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사실 답은 간단하다. 그 올라온 마음을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 제삼자의 입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조용히 관조하면 된다. 우리가 보통 잘 모르는 대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기존에 알았던 생각들을 내려놓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헤민 지음 / 쌤앤파커스 / 2012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달라이라마 지음, 김영사, 2001
-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흐마 지음, 연금술사, 2013
- 마법의 순간
파울로 코엘료 지음, 자음과모음, 2013

고 조용히 그 대상을 관찰하면 되지 않던가? 즉, 진흙탕과도 같은 마음 그릇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고, 마음 그릇에서 나와 침묵으로 그 감정들을 영화나 드라마 보듯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조하는 자가 화, 짜증, 불안, 질투와 같은 말에 집착하지 않고 그 말이 지칭하고 있는 화의 에너지, 짜증의 에너지, 불안의 에너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다. 마치 거울이 어떤 것은 비추고 어떤 것은 비추지 않는 식의 선택을 하지 않는 것처럼, 나 역시 그저 물끄러미 올라온 감정의 에너지를 선택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다.』(p. 203)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쿠바, 감성과 힐링의 시간

송원길 지음 / 다원티앤에스 / 2019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쿠바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쿠바의 감성 명소와 문화, 경제 등 전반적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쿠바, 당황스러운 쿠바의 인터넷, 걸어서 여행하기 좋은 도시 아바나, 쿠바의 밤 문화, 아바나와 함께한 음악 여행, 멈춰있는 트리니다드 등등, 소재목에서 알 수 있듯이 쿠바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과 힐링으로 이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현대의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 나의 등대

소피 블랙을 지음 / 비롱소 / 2019

2019 칼데콧 대상 수상작으로, 뉴욕 타임스에서 올해의 주목할 만한 책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수채 물감의 향연과 입체적인 화면구성으로 등대지기 가족의 이야기가 거친 바다 위에서 한 폭의 수채화처럼, 또 한편의 영화처럼 펼쳐지는 그림책입니다. 책 속에서 등대지기는 떠났지만 등대는 여전히 바다를 비추고 있습니다. 특별하지만 또 일상적인 등대지기의 삶과 가족 이야기를 통해 사라져가는 등대지기 직업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주)세인	1명	경리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180만원
주식회사 다인	1명	대기환경기사 (자격증소지자)	09:00~18:00 (주5일)	월250만원이상 (협의)
(주)매홍엔애프	1명	제조 생산관리자 (경력5년이상)	09:00~18:00 (주5일)	월250만원 (협의)
(주)오션벨리	2명	객실청소원	09:00~17:00 (주6일)	월175만원
	2명	건물보수원 및 영선원	2교대 (시간 협의)	월230만원이상 (협의)
서한통상(주)	1명	청원경찰 (농협근무)	08:30~17:30 (주5일)	월181만원
현대시설관리(주) (미천골자연휴양림)	2명	객실청소원	09:00~17:00 (주6일)	월190만원
코리아벤처시스템 (설해원골든비치)	3명	조리보조원	2교대(주5일)	월219만원
(주)하이테크이엔지	1명	주방기기 생산직	08:30~17:30 (주5일)	연2,200만원
해담마을 영농조합법인	1명	경리사무원	08:30~17:30 (주5일)	월180만원
(주)설악산그린푸드	2명	생산직	09:00~18:00 (주5일)	시급8,350원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9년 7월 22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진드기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 및 관리

예방 1 옷 제대로 입고

예방 2 기피제 뿌리고

예방 3 풀숲 피하고

플라이강원 예약센터 직원모집

구분	채용인원	면접(예정)	교육(예정)
1기	15명	8/9일, 8/23일	9/1~ 9/30

□ 근무형태 : 부일정보링크(주) 정규직

□ 업무내용

- 플라이강원 예약 발권업무
- 순수 인바운드 상담



□ 일 정 : 면접(8월)→교육(9월)→입사(10월)

□ 급 여 : 회사내규에 따름

□ 문 의 :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T.670-2090~3

2019 하반기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수강생모집

프로그램(35과목) 오전10시 / 오후13:30 / 야간18:30

주안 21	과목명	시간표	시간	수강료	강의실	인원	개인준비물
교양	1 노래교실	월/목 오전	4	3만원	대회의실	20	개인 텀러리
	2 문인화	월 오후	4	3만원	305	12	휴대용 문방사우, 재료공통구매
	3 한문시예	수 오전	2	2만원	305	12	휴대용 문방사우, 재료공통구매
	4 그림의 기초	수 오후	3	2만5천원	305	12	개인도구(붓, 팔레트, 물감)
	5 여행수첩화(주간)	목 오전	2	2만원	305	12	개인도구(붓, 팔레트, 물감)
	6 한글시예	금 오후	4	3만원	305	12	휴대용 문방사우, 재료공통구매
건강	7 영상요가	월/수 오전	4	3만원	401	15	개인 텀러리, 수건
	8 파워요가	화/목 오전	4	3만원	401	15	개인 텀러리, 수건
	9 춤바	월/수 오전	4	3만원	101	15	개인 텀러리, 수건
	10 댄스스포츠(주간)	화/목 오전	4	3만원	101	15	개인 텀러리, 수건
	11 일본어회화	월/수 오전	4	3만원	304	15	개인 텀러리
	12 영어회화(초급)	월/수 오후	4	3만원	303	15	개인 텀러리
영어	13 영어회화중급(주간)	화/목 오전	4	3만원	304	15	개인 텀러리
	14 한글문화교육(학력인정)	화/목 오후	4	3만원	303	15	교재제공(교학부)
	15 한자교과	월 오후	4	3만원	201	15	재료공통구매 약15만원
	16 꽃누르미	목 오후	4	3만원	201	15	재료공통구매 약15만원
	17 전통차(茶道)	금 오후	3	2만5천원	201	15	재료공통구매 약30만원
	18 실용의상(중급)	월 오후	4	3만원	307	12	재료공통구매 약15만원
기능	19 홈트닝(중급)	수 오후	4	3만원	307	12	재료공통구매 약15만원
	20 의상리폼(중급)	목 오후	4	3만원	307	12	재료공통구매 약15만원
	21 태권보 기초	금 오후	4	3만원	307	12	재료공통구매 약15만원
야간 14	과목명	시간표	시간	수강료	강의실	인원	개인준비물
	1 플리그라지	월	3	2만5천원	305	12	휴대용 문방사우, 재료비 10만원
	2 바이올린 기초	화	3	2만5천원	대회의실	15	개인악기
	3 우쿨렐레	수	3	2만5천원	대회의실	15	개인악기
	4 뽕기타	목	3	2만5천원	대회의실	15	개인악기, 개인악기
	5 여행수첩화(야간)	목	2	2만원	304	12	개인도구(붓, 팔레트, 물감)
건강	6 직장안요가	화/목	4	3만원	401	15	개인 텀러리, 수건
	7 댄스스포츠(야간)	월/수	4	3만원	101	15	개인 텀러리, 수건
	8 라인댄스	화/목	4	3만원	101	15	개인 텀러리, 수건
	9 영어회화중급(야간)	월/수	4	3만원	304	15	개인 텀러리
	10 중국어회화	월/수	4	3만원	303	15	개인 텀러리
	11 왕초보 율리안	월	3	2만5천원	조리실	12	재료공통구매 약20만원
기능	12 플루아리스트(취미반)	화	3	2만5천원	201	12	재료공통구매 약45만원
	13 시조반	목	2	2만원	303	15	개인도구, 재료비 약30만원
	14 홈트닝(야간)	화	3	2만5천원	307	12	재료비 약15만원

모집기간 & 입금기간

2019. 8. 5.(월) ~ 8. 9.(금)

교육기간(15주)

2019. 8. 26.(월) ~ 12. 6.(금)

접수대상

양양군민(주민등록기준) 및 양양군에 주소록 둔 사업 근로자(종빙사제출)

접수 준비사항

- 신분증(본인확인 및 주소확인)
-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계좌 및 정월초과 과목 낙첨 시 수강료 환불
- 수강료 면제자 서류

양양군여성회관 ☎670-2777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 ※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복지과
- 신청대상 :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양양군 보훈영예수당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 (매월 15일) 5만원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등 사본
 - 신청인 통장사본
- 문 의 : 양양군청 복지과 ☎ 033)670-2294 및 읍면사무소

한전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 시행

-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한전' 앱을 다운받아
직접 전력량계 검침 후 지침을 입력하면
- | | |
|--------------|--------------------------------------|
| 실시 간
정보제공 | 현재까지의 사용량 및 전기요금
당월 예상 사용량 및 전기요금 |
|--------------|--------------------------------------|
- 우리집 여름철 누진요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전기사용(관련문의 : 국번없이 ☎123)

2019년 하반기 군민정보화교육

월별	기 간	접수기간	교육 내용
9월	9. 2. ~ 9. 27. (월,수,금)	8. 26. ~ 8. 30.	(주간) 스마트폰입문(기본 사용법) 컴퓨터 입문 & 인터넷 활용
			(야간) 스마트폰활용, 포토샵 및 동영상 편집 컴퓨터 기초
10월	9. 30. ~ 10. 25. (월,수,금)	9. 23. ~ 9. 27.	(주간) 스마트폰활용(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앱 활용) 멀티미디어 입문(사진&동영상 편집)
			(야간) 스마트폰활용, 포토샵 및 동영상 편집 블로그·페이스북 콘텐츠 작성법, SNS

- 장 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
- 인 원 : 28명(선착순) * 소수 신청시 취소 될수 있음
- 시 간 : (주간반) 10:00~12:00 / (야간반) 18:30~20:30
- 신청방법 : □ 인터넷 : 양양군청 홈페이지(www.yangyang.go.kr)
* [분야별정보]-[교육]-[교육신청]
- 전 화 : 033-670-2116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 '지역사회건강조사'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협력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매년 25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 조사대상
 - 조사대상자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대표성 있는 가구를 선정 후, 해당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을 조사
 - 지역별 만 19세 이상 성인 평균 900명 조사(전체 23만명)
- 조사시기
 - 2019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조사내용
 - 신체계측(키,몸무게) 및 혈압측정,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손상, 삶의 질, 의료이용 등 조사
- 조사방법
 - 선정된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실시
 - * 조사 완료 후 감사의 마음으로 조사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 지급
- 협조사항
 -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사진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오니,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 ☎ 033)670-2556



강원도민 대상 무료 사이버교육 운영

- 교육기간 : 매년 연중 실시
- 교육대상 : 강원도민 누구나
- 교육방법 :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한 사이버 강의(무료)
 - 학습사이트 : 도민사이버배움터(<http://elearning.provin.gangwon.kr>)
- 교육과정 : 4개 분야 380여개 과정

분 야	과 정 명
외 국 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타외국어(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자 격 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컴퓨터활용, 전산회계 등
정 보 화	OA(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포토샵, SNS 활용 등
생활교양	자녀교육, 생활/취미, 직무, 재테크, 비즈니스, 생활체육 등

- 수강신청 방법 :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등록 후 수강 신청
- 문의 : 강원도인재개발원 교육연구실 ☎033-248-6262

여름철『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니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만75세 어르신 치매조기선별 전수조사 안내

- 기 간 : 연중(3월~10월 집중조사기간)
- 대 상 : 만75세 어르신(1944년생)
- 장 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진료소
- 문 의 : 보건소 정신건강담당 ☎033)670-2565, 2854

양양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선도지구)사업

양양맛있는 야시장

5월~9월 / 17시~22시
양양웰컴센터 일원

1회	5.17~18
2회	7.25~26
3회	8.01~02
4회	8.08~09
5회	8.07~08
6회	9.20~21

양양군 양양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 양양천문시장 상인회 양양지역활성화센터 양양지역활성화센터



- 공모명 : 2019 양양군 UCC공모전
- 공모기간 : 2019.7.22.~11.30
- 응모자격 : 전국민 누구나(개인, 팀 가능)
- 공모주제
 - 양양에서 일어나는 유쾌하고 감동적인 스토리
 - 양양 관광□축제, 서핑, 먹거리, 미세먼지없는 지역 소개
 - 양양 군정정책 관련 콘텐츠
- 출품수량 : 1인(팀)당 2편 이내 중복수상 불가
- 출품자격 : 공모전에 출품 수상한 내역이 없는 순수 창작물
- 제출물
 - 작품 1부
 ⇒ 개인 유튜브에 업로드 (유튜브 조회수 및 좋아요는 2심에서 참고 됨)
 - 참가신청서 1부/ 작품서명서 1부/ 서약서1부(이메일로 제출)
 서식 다운로드 : <https://blog.naver.com/likeyyang>
 제출이메일 : jsmj4@korea.kr
- 제출규격
 - 작품형식 : 30초이상~3분이내 동영상
 - 작품규격 : 해상도 1920*1080이상 용량 1GB이내
 - 파일형태 : MP4, MOV, WMV ※제출규격에 어긋날 경우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제목을 '양양군UCC공모전_작품명'로 설정하여 개인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서약서를 '양양군UCC공모전_이름(팀)'으로 압축
 - 파일 생성 후 jsmj4@korea.kr로 전송
 - 11월 30일(토) 오후 11시 59분 이전에 제출된 작품만 접수처리
 - 본선(2차심사) 진출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후 작품 원본 접수
- 당선작 결정 및 발표
 - 심 사 : 1차 예선심사, 2차 본선심사를 거쳐 수상작 선정
(2차 본선 심사 시 유튜브 좋아요 및 조회수 반영)
 - 심사기준 : 창의성, 화제성, 흥미성, 기술성 등
 - 발표일자 : 2019년 12월 말 예정
 - 개별통보 및 양양군 공식 SNS에 당선자 게시
- 시상내역

등 급	작품수	부상금	비 고
대 상	1점	500만원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편수 및 등급 변동가능
최우수상	1점	300만원	
우수상	1점	100만원	
장려상	2점	50만원	

※ 심사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작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안자 수 및 영상수준에 따른 시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아아아 UCC 공모전 에서 생길 일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1등 5백만원의 전국민 참여 프로젝트!!

공모기간 : 2019. 7. 22 ~ 11.30 참가자격 : 전국민 누구나

공모주제 : 양양관련 관광, 축제, 서핑 등 콘텐츠 공모분야 : 영상(UCC)분야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서식다운 : <https://blog.naver.com/likeyyang>

문의 : 양양군청 홍보팀 033-670-2103